

##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86)(11/10/2021)

## 제 3 권 내적 위로

## 제 2 장 소리 없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진리, 1-3 절

출 20:19 -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고후 3:6 -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요 6:68 -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1. <제자>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삼상 3:10).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언들을 알게 하소서(시 119:125). 내 마음이 주의 입의 말씀들로 향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이슬처럼 내리게 하소서.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출 20:19)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여, 내게는 그렇게 하지 마소서. 내게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소서. 선지자 사무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삼상 3:9). 모세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쳐 주신 주께서 친히 말씀하소서. 주께서는 선지자들 없이도 친히 나를 온전히 가르치실 수 있으시지만, 주님 없이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들은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들을 전할 수는 있지만, 성령을 수여할 수는 없습니다.

2. 선지자들은 지극히 아름답고 훌륭한 말씀들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침묵하시면,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여 뜨겁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전할 뿐이지만, 주님은 그 뜻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우리에게 전해 줄 뿐이지만, 주님은 그 신비들이 의미하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전할 뿐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계명들을 행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들은 길을 보여 줄 뿐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길로 행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들은 단지 외적으로만 일할 뿐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르침과 빛을 주십니다. 그들은 밖에서 물을 줄 뿐이지만, 주님은 자라게 하십니다(고후 3:6).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칠 뿐이지만, 주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3. 그러므로 주 나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진리이신 주께서 친히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외적으로만 경고를 받고 내면은 뜨거워지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고,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사랑하지 않으며,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 날에 그 말씀이 일어나 나를 쳐서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요 6:68). 주여, 내게 말씀하셔서, 내 영혼이 위로를 받고, 나의 삶 전체가 고침을 받으며, 영광과 존귀가 주께 영원히 있게 하소서.

## 말씀과 해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을 도우며 성막에서 주를 섬기고 있을 때 불현듯 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삼상 3:9)라고 말했다. 사무엘의 말은 단순히 들리는 말씀을 그냥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담아 들겠다고 한 것이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가? 나는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는가?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잘 듣는 사람이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하시지만, 그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기는 원하신다. 눅 10 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때 마르다가 동생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자, 예수님은, “41. . . .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눅 10:41-42)고 하셨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같이 몸으로 열심히 섬기는 것이 필요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준다. 외적으로 잘 섬기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해야 한다.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인 사람만이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는 것의 중요함을 가르치셨다. **막 3:35 -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말씀의 뜻을 알아들을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감동을 받을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어느날,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는데, 그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길을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지 못하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성경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제자들은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유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인줄 알게 되었다. 그 때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지셨고, 그들은 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눅 24:32).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인한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뜨거움의 역사는 깨달음, 감동, 영적 각성, 회개, 중생의 역사와 연결된다.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뜨거운 말씀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의 역사로 내가 살고, 나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이 땅 전체가 살아날 것이다.

오늘도 나 자신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기를 원하신다. 영적 승리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들겠습니다.
2.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며, 말씀으로 변화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3. 우리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들과 기관들이 성령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